

다시 보는 '전주국제영화제'

'폴링 인 전주' 내달 7일 개막

제19회 전주국제영화제 수상작과 상영작을 다시 볼 수 있는 '폴링 인 전주(Falling in JEONJU)'가 개최된다.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는 오는 9월 7일부터 11일까지 전주영화제작소와 전주도시혁신센터 일대에서 '2018 폴링 인 전주(FALLing in JEONJU)' 행사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총 6개의 섹션, 29편의 영화(장편 17편·단편 12편)가 상영된다.

올해는 기존 4일이었던 행사 기간을 5일로 확장하는 한편 전주영화제작소와 야외상영이 열리는 전주도시혁신센터 두 군데로 행사공간을 집중시켜 진행하기로 했다.

상영 프로그램은 제19회 영화제 상영작 중 국내에서 개봉되지 않은 신작들을 중심으로 선보인다.

장편 데뷔를 한 감독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스타트업 인 전주', 2번 이상 영화제를 방문한 감독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전주와의 재회' 섹션을 통해 영화제와의 특별한 인연을 갖게 된 감독들의 작품들이 소개될 예정이다.

또 거장들의 신작들을 소개하는 '거장의 화제작' 섹션에는 압바스 키아로스타미의 유작 '24 프레임', 마카엘 하네케의 신작 '해피엔드', 사무엘 마오즈 감독의 '폭스트롯'을 선보인다.

아울러 영화제에서 소개되지 못한 작품들은 '프리미어' 섹션을 통해 한국에서 처음으로 상영될 예정이다.

단편영화 섹션에서는 시민 영화 프로그래머들의 선정작 '시민참여 섹션'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진행된다.

'약자와 약자들'과 '성장 관타지아'라는 두 개의 키워드로 구성된 2가지 단편 섹션을 통해 영화제 기간에 아쉽게 관람을 놓친 단편 영화들을 만나 볼 수 있다.

이와함께 전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와 공동으로 진행되는 야외상영은 서노송동에 위치한 전주도시혁신센터에서 '무성영화의 은밀한 매력' 섹션에 선정된 무성영화들이 야외상영으로 선보인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국제영화제(www.jiff.or.kr)와 전주영화제작소(theque.jiff.or.kr)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송효철 기자



빛나는 남원도예의 혼을 이어간다

남원 도예가 김광길의 '연잎 이야기 展'



심수관과 이삼평 등 빛나는 남원도예의 혼을 이어가고 있는 김광길(前 서남대교수)의 '연잎 이야기 展'이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인사동에 위치한 갤러리 라메르에서 기획 초대전으로 열린다.

김 교수의 작품은 한없이 부드럽고 넓은 연잎과 유유자적하며 흘러다니는 잉어와 드러나지 않는 여백을 표현하며 관객들을 몰아일체 세계로 빠져들게 한다.

또한 그릇의 형태감이 중시되어온 도예 작업에서 벗어나 그릇위에 씌워내는 색들의 색감과 공간 연출을 통해 회화적 느낌이 강한 한 폭의 도화로 그려낸 연지 풍경이다.

김 교수가 즐겨 다루는 주제 연잎과 연지는 혼탁한 세상 위로 맑고 향기롭게 피어오른 꽃 봉우리 보다는 오히려 그 꽃송이를 받치고 있는 연잎과 무심한 잉어로 세상을 정화시켜주는 심리적 연상효과를 낳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갤러리 10여m 벽면

을 주 화관삼아 바다에서부터 벽면에 활짝 펼쳐진 연잎과 그늘 쪽을 향해 무리지어 유영하는 비단잉어들을 설치한 연출이 백미로, 일반적인 좌대 위의 도자기 전시 대신 갤러리 공간을 쇼케이스 삼아 그의 연잎과 잉어들이 하나의 큰 세상 이야기를 펼쳐 놓은 것이다.

전통과 현대의 연결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전통 도자촌 출신인 김 교수는 '남원 국제도예페스티벌'을 5년째 운영하며 남원 전통 도예의 계승과 현대적 확장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 교류의 장으로 만들어 왔다.

또한 전통도자의 가치를 학술적 연구를 통해 천연유약, 소성기법 등 조사와 재현 연구를 계속해오면서 그 데이터들을 토대로 특허를 내고 순수 도자예술을 접목해서 현대도자로 확장시키고 산업도자로도 효용성을 높이는데 힘써 왔다.

한편 김 교수는 개인전 10회와 국내외 단체전에 다수 출품했으며, (사)광주전남 디자인협회 부회장, (사)광주미술협회 부회장, (사)한국미술협회 이사, 남원국제도예페스티벌 운영위원장과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특별전 초대작가 및 청주 국제 공예비엔날레 아트 페어 초대작가를 역임했다.

/남원=김기두기자

익산예술의전당, 창극 '변강쇠 점 찍고 용녀' 공연

익산예술의전당에서는 변강쇠타령을 새롭게 재해석한 창극 '변강쇠 점 찍고 용녀'를 오는 9월 1일 오후 3시 대공연장 무대에 올린다.

창극으로는 최초로 관람등급 18급인 이 작품은 변강쇠가 아닌 그의 여자 '용녀'를 주인공으로 판소리 특유의 익살과 해학, 풍자가 넘친다.

또한 2014년 초연 및 2015년 재공연 당시 평균 객석점유율 90%를 기록하고 프랑스 파이 중심부의 극장 테아트르 드 라 빌에 창극 최초로 공식 초청받아 한국을 넘어 프랑스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국내 창극의 역사를 새로 쓴 이번 작품은 외설적이라는 이유로 잃어버린 판소리 일곱 바탕 중 하나인 변강쇠타령을 생명력 넘치는 이야기로 재탄생시켰다.

이로 인해 변강쇠타령이 색(色)을 밝히는 호색남녀 이야기라는 편견을 깨뜨린다는 점이 이 작품의 특징이다.

원작 비틀기의 고수인 고선웅 연출은 마초 색깔남 변강쇠에만 맞춰져 있던 시선에 '점'을 찍고, 박박하지만 당찬 여인 용녀를 주인공으로 이야기를 풀어냈다.

특히 판소리 원작의 약점인 스토리 라인을 강화하고, 변강쇠와 용녀 등 여러 등장인물을 생생하게 재탄생시켜 외설이 아닌 인간미가 넘치는 이야기로 재해석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한편 이번 공연은 음악의 밀도를 높이고 의상 일부에 변화를 줘 완성도가 더욱 높아질



창극 '변강쇠 점 찍고 용녀'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창극단 김지숙과 이소연이 용녀를 연기

하고 김화용과 최효성이 변강쇠 역을 맡아 열연을 펼친다. /익산=우병희 기자

부안예술회관, 문화가 있는 날 작은 음악회 29일 공연

부안예술회관은 2018년 문화가 있는 날·작은 음악회 사업에 선정돼 추진하는 '영화음악 클래식'을 오는 29일 오후 7시 30분 무료 공연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클라무필하모니오케스트라단(단장 유수영)의 클래식 연주로 유명 영화음악을 한 번에 들을 수 있는 공연이다.

클라무필하모니오케스트라단은 부안군 공연장 상주단체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 2009년 4월 금난새의 지휘로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창단연주를 시작해 매년 10회 이상 정기연주회 및 기획연주회를 하고 있다.

공연에서는 텔 미 썬딩, 불벌의 연인, 태극기 휘날리며, 포레스트 검프, 미션, 빌리 엘리어트, 어벤져스에 나오는 영화음악(OST)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공연은 4번째 열리는 작은 음악회로 군민의 눈높이와 군민과 밀착해 진행하는 공연 프로그램이라는 호평을 받고 있다.

앞으로 부안에서 펼쳐질 작은 음악회 공연은 라틴카니발(9월 27일), 시네마 콘서트(10월 30일), 낭만보이스 합창오케스트라(11월 26일), 안데스 음악(12월 26일)이 매월 문화가 있는 날 주간(마지막 주)에 준비돼 있다. 부안군 관계자는 "다양한 영화 7편을



보는 듯한 한여름 밤의 무대가 펼쳐져 영화속 주인공이 된 듯 환상적인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